

공공공사 대금 업체에 직접 준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임금체불 문제 해결 기대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추진된다. 하도급 직불제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임금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한 후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기로 했다. 하도급 직불제가 시행되면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금체불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자는 6만5,573명, 체불액은 24억8,78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들은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할 경

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져 관리감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하도급업체 간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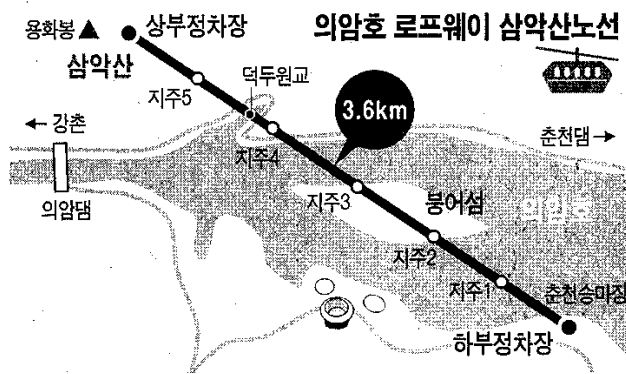
의암호 로프웨이 '삼악노선' 확정

【춘천】춘천시 의암호 로프웨이 노선이 삼천동~삼악산(삼악노선)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춘천승마장 인근 임시주차장을 출발해 삼악산 정상 용화봉 인근까지 잇는 3.6km의 국내 최장 구간이다.

춘천시는 최근 강원발전연구원과 전문업체를 통해 사업 용이성, 미래효과, 환경성 등 평가 항목을 종합 비교한 결과 삼악노선이 서면노선(삼천동~서면 에니메이션박물관)을 앞섰다고 28일 밝혔다. 삼악노선은 77.1점, 서면노선은 70점으로 나왔다.

사업 용이성에서는 정부의 규제프리존 선언으로 공익용 산지인 삼악산에도 민간투자를 통한 케이블카 사업이 가능하게 된 점

삼천동~삼악산 3.6km 국내 최장 구간... 규제프리존 효과



이 크게 반영됐다. 또 생태자연도 1등급인 상부정차장 부근 조림지가 조만간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비쳐지면서 가점을 받았다.

미래효과에서는 삼악노선이

경관매력도, 지역관광상징성(랜드마크), 경제활성화, 재이용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성에서는 경관훼손, 문화재현상변경 부분에서 불리하게

나왔지만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시는 29일 열리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노선을 공식 발표한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하반기 착공,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한다는 목표다. 준공 시 총 52대 가동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900명, 1일 1만2,400명, 연간 127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추산했다.

최동용 춘천시장은 "산악과 호수가 있는 스위스의 케이블카를 벤치마킹해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의암호 로프웨이는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명품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현기자

건설사·공무원 상습 협박한 50대 징역형

금품 가로채거나 공사수주 방해 위 민원 서류를 수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주/정성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윤정 판사)은 고발 취하 등을 빙자해 건설업체와 공무원을 협박, 금품을 가로채거나 공사 수주를 방해한 혐의(공갈등)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춘천 B건설업체에서 시공한 원주 노립리 자전거도로 펜스가 수해로 파손됐음에도 부실 자재로 인한 파손이라며 B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뒤 업체로부터 고발 취하 명목으로 10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타 업체의 공사 수주를 방해한 뒤 자신이 해당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원주국토관리청과 조달청 등에 허

도 건설업체 진부역 진입도로 공사 수주 선전

강원도내 건설업체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직접시설인 진부역 진입도로 공사 수주에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와 도건설협회에 따르면 진부역 진입도로 총 공사비는 토목 578억원을 포함해 총 1141억원이다.

최근 개찰이 완료된 토목 공사의 경우 3개 공구에서 도내 건설업체 6곳이 수주에 성공했다.

진부역 진입도로 1공구는 평창 진부면 호명리~유천리(3.6km)까지 도로개설 공사로 춘천 삼양사가 189억원의 지분 70%로 주 사업자가 됐다.

2공구는 유천리~용산리(1.8km) 구간으로 공사 금액은 204억원이다. 서울 건영이 51%로 주 건설사며 도내에서는 흥천 태성종합건설(34%), 원주 흥주건설(15%)이 각각 공사에 참여한다.

공사금액이 184억원인 3공구 역시 유천리~용산리(3.5km) 구간으로 전남 위본건설이 지분 51%를, 도내에서 원주한서종합건설(29%)과 원주 영화건설(20%)이 공사에 참여한다.

한편 진부역 진입도로 공사는 지난 20일 착공했으며 2017년 12월 완공예정이다. 안은복 rio@kado.net

춘천 로프웨이 ‘삼악산~삼천동’ 확정

노선 3.6km 국내 최장... 내년 하반기 착공 의암호 전경 한눈에 조망 최고 관광지 기대

춘천 의암호 로프웨이 노선이 국내 최장(3.6km)인 삼악산~삼천동으로 최종 확정됐다.

춘천시는 삼악산~삼천동, 서면~삼천동 노선을 놓고 벌인 비교 검토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삼악산~삼천동 노선을 29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암호 로프웨이 노선으로 최종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용이성과 미래 효과, 환경성 등 3개 분야 14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진행된 비교 검토에서 삼악산~삼천동 노선은 77.1점(100점 만점)으로 서면~삼천동 노선 70점보다 7.1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삼악산~삼천동 노선은 삼악산 7부능선과 삼천동 사이클경기장에 각각 놓일 상부정차장(440m), 하부정차장(75m)까지 3.6km를 연결, 표고차가

365m에 달해 도심과 의암호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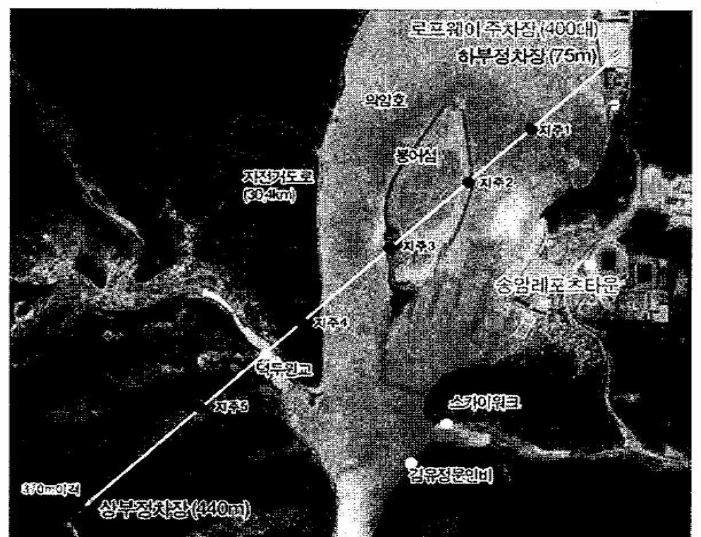
케이블을 잇는 지주 5개 가운데 1개만이 의암호에 설치돼 사업 추진도 용이하다.

춘천시가 상부기관에 요청, 상부정차장 인근 지역의 생태자연도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악산~삼천동 노선은 탑승 장치인 캐빈 52대를 가동할 경우 시간당 900명, 1일 1만2400명, 연간 127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삼악산~삼천동 노선의 총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분석됐고, 개발 및 운영 방식은 제1섹터(공공), 제2섹터(민간), 제3섹터(공공·민간 합동) 중 하나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민간 기업 4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춘천시는 오는 5월 기본계획수립을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17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최동용 시장은 "상징성, 경제활성화, 민간투자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삼

악산 노선이 유리하게 나왔다"며 "로프웨이는 국내에서 가장 긴 소양스카이워크에 이어 춘천이 가진 또 다른 국내 최고 수준의 관광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

종심제 시범사업 종료 본격 공사발주 나선다

지난 2년여간 추진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시범사업 집행이 마무리돼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다.

28일 조달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수요의 종심제 대상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5공구 토목공사 가격개찰을 집행하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 공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두번째 종심제 시범사업이자, 토목공사로는 유일한 종심제 대상 사업이다.

개찰 결과를 보면, 모두 17개사가 투찰에 나선 가운데 한양이 예정가격 대비 86.963%의 투찰률

로 432억3369만8160원을 써내 최저 투찰률을 기록했다.

이어 태영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이 86% 후반대 투찰률을 써냈고 동광건설과 한일건설, 쌍용건설 등 최고 투찰사 1곳을 제외한 10개사는 모두 87% 초반대로 투찰했다.

업계는 관리비 부담이 큰 공사규모(추정 가격 467억원) 대비 공기(착공 후 2889일)가 길어 비슷한 규모의 시범사업 대비 투찰률이 높게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낙찰률도 87% 전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은 심사를 통해 늦어도 다음주 초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종심제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BPA)도 자체 시행 종심

제 마지막(2번째) 시범사업인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2공구) 조성공사에 대한 가격개찰을 집행했다.

모두 10개사가 투찰에 나선 가운데 대림산업이 저가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림산업은 예가 대비 81.981%의 투찰률로 1105억2340만3320원을 적어냈다.

SK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81.981%와 91.994%의 투찰률로 뒤를 이었다.

또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한라, 동양건설산업, 한양 등은 모두 82%대 초반대 투찰률을 보였고 포스코건설이 82.572%로 가장

높은 투찰금액을 써냈다.

이에 따라 이 공사 낙찰률은 앞선 첫 시범사업(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제3공구 조성공사)의 낙찰률 84.05% 보다는 1~2%포인트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또 2건의 시범사업 평균 낙찰률은 83%내외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한 시범사업 평균 낙찰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BPA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종합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의 시범사업 결과 및 계약예규 등을 토대로 세부심사기준도 마련, 종심제 발주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야 분쟁조정 처리 3000건 돌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처리건수가 3000건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이후 8년 만에 1만487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조정을 통해 무료로 해결해주는 제도로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의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 실적은 분야별로 보면 가맹거래가 4088건(39.0%)으로 가장 많고 하도급거래 3117건(29.7%), 공정거래 2844건(27.1%), 약관 292건(2.8%), 대규모유통업거래 146건(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하도급거래의 경우 연평균 89.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업 평균임금 月 257만원... 7업종 중 '하위'

주택시장 호황 등으로 건설사들의 공간이 두둑해졌지만, 건설업 종사자들의 임금은 다른 업종보다 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임금 상승폭도 다른 업종의 평균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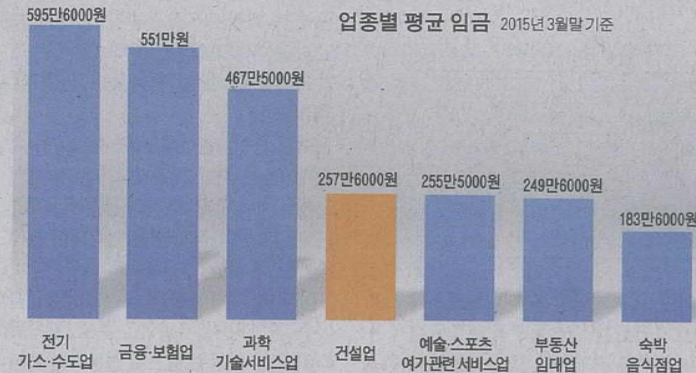
28일 한국은행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건설업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약 257만6000원이다.

100만원 후반대에 머물렀던 건설업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지난 2010년 1분기 처음으로 200만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여러번의 부침을 겪었지만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분기에 250만원대가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업 종사자들의 임금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업으로 확인됐다. 전기·가스·수도업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595만6000원으로, 건설업종 평균 임금의 2배 이상이었다.

금융·보험업(551만원)과 과학·기술서비스업(467만5000원)이 뒤를 이었다.



상승폭 1.5% 불과 '평균이하' 전기·가스업 595만원 '최고' 금융·보험업 551만원 뒤이어 부동산·임대업은 249만원

반면 건설업종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183만6000원)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255만5000원) 등 3~4개에 불과했다.

부동산·임대업의 평균 임금은 249만6000원으로 건설업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견·중소 건설사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보여주

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급여 수준이 낮은 건설업의 임금 상승폭도 하위권에 속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3분기 임금 상승률은 1.5%로 조사됐으며, 같은 2분기에는 오히려 3.9% 떨어졌다.

같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19.6%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했다. 이어 제조업(8.9%)과 운수업(8.5%)은 8%대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급여 수준이 높은 금융·보험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의 상승률은 각각 7.3%와 7.0%로 집계됐다.

부동산·임대업(1.9%)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1.7%) 등은 건설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의 현금자산은 날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더불어 주택시장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대부분의 중견·중소 건설사 현금자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춘천시청 신청사 건립 4월말까지 발주

800억규모... 市, 실시설계 진행 중

총 공사비 800억원 규모의 춘천시청 신청사 건립공사가 이르면 4월 말 발주될 전망이다.

28일 춘천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사 건축사업과 관련해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설계용역 기간이 4월8일까지다. 공사발주는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입찰 기간을 거쳐 6월까지 공사계약이 이뤄져 착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는 총 사업비 900억원 가운데 8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종합심사제 해당 사업이라 시는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할 예정이다. 다만, 강원지역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청사 부지에 새로 들어설 신청사

는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진다. 연면적 2만1000여㎡로, 현 청사(1만4000여㎡)보다 1.5배 넓어진다. 시의회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3200여㎡)으로 건립된다. 시는 청정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전체 사용 에너지의 18%를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했다. 근대문화재인 현 청사 내 옛 춘천문화원 건물은 역사전시관과 카페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 시는 다음달 13일부터 3월 말까지 임시청사인 옛 수도여고 건물로 이전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공간 배치 기준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개방, 시민 편의, 도시 중심 기능 제공, 녹지 확충 등을 고려했다"면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2018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훈기자